

## 독자들과 함께 쌓은 1만호 '금자탑'



전남일보 창간호.

(1) 第1號 (1989年1월7日創刊號)

The Chonnam Ilbo 西紀 1989年(禮紀 4322年) 1月 7日 土曜日 (日刊)

### 民主·眞實·地方시대

創刊辭

### 5·18 眞相 규명 아직 안됐다

民主化 이룩돼야 統一 地自制 邑面洞까지 실시될

光州, 全南人 사회의식 조사

### 創刊特輯 44면 반향

高中部 3월식별호

日히로히토 死亡

記事 7면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남로 154-1 (우편번호 501-025)

편집부: 527-6049

광고부: 527-6043

발행처: 527-6044

서울지부: 527-6047

전화: 527-6047

팩스: 527-6047

인터넷: www.chonnamilbo.com

1989년 1월7일 창간호 발행  
35년 4개월 언론의 소명 수행  
'민주주의 구현·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사시 구현 앞장

1989년 1월 7일 1호 신문(창간호) 발행 ... 2024년 5월 21일 1만호 발행. 전남일보라는 이름을 단 신문을 인쇄하기 위해 35년 4개월 동안 운전기가 1만 번 돌았다. 지성무시(至誠無息)이라 했던가. 지령(紙齡) 1만호의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 독자와 함께 한 오달지고 지난했던 세월이었다. 전남일보는 이 땅에 신문이 부족해서 태어난 게 결코 아니었다. 시대의 부름을 받아 참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을 진실되게 보도하는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그 정신과 가치는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로 녹여냈고, 1만번 째 나이에 틀어박힌 오늘까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

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외압속에서도 펜끝이 휘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전남일보는 오롯이 독자들의 신문이다. 지령 1만호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신문과 독자는 줄(擘)과 탁(喙)이었으며, 씨줄과 날줄이었다.

35년 여 세월동안 전남일보는 '광주 언론의 심장'이던 5·18 바로 잡기,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제안, 바다살리기와 무등산 보호 등 환경 문제, 벼랑 끝에 몰린 농어민의 실태' 등을 꾸준히 보도하면서 지역민들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령 1만호를 맞는 전남일보의 1면에 1989년 1월7일 '창간호'를 다시 신는 의미는, 비록 언론환경이 열악해지고, 독자를 만나는 형식이 변할지라도 창간의 이념과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약속이다.



創刊辭

本報는 1989년 1월 7일 창간호를 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간호를 발행한 지 35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로 녹여냈고, 1만번 째 나이에 틀어박힌 오늘까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신문기자신문협회  
라이카(주)

광주광역시 동구 동남로 154-1  
527-6049

舍씨 간접증언 반대

金大中 총재 간담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지령 10000호' 지면 소개 축하메시지 ▶2·3면 사회공헌활동 ▶4면 1면 토크콘서트 본 이슈 ▶5면 특종보도 ▶6면 화보 ▶7면 수습기자 각오 ▶8면 장기 애독자 ▶9면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 5·18 토크콘서트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민주문화제의 일환으로 5·18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기 위한 5·18 토크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 사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5·18 토크콘서트  
일 시 2024년 5월 22일(수) 14:00-15:30  
장 소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관 1층 소강당  
참가자 일반 시민 및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강 연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서부원 살레시오고 교사

주최/주관 전남서부보훈지청 후원 5·18기네제단